회당축전, 울릉도를 '문화'로 수놓다



진각종은 6월 29일 울릉도 울릉 한마음회관에서 '2022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했다. 회당문화축제 하이라이트인 '독도 아리랑 콘서트'에서 국카스텐 밴드의 공연에 울릉도 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진각종, 6월 28~29일 '2022 회당문화축제' 개최

6월 29일 독도아리랑 콘서트 '백미'
국카스텐 등 유명가수 공연 호응↑
주민·관광객 어우러져 콘서트 열광
명실상부 지역 대표 축제 자리매김
'진호국가 무진서원 불사' 행사도
원행 스님 등 종단 수장 첫 참석해

울릉도=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질러!"

6월 29일 밤 10시 경북 울릉군 울릉 한마음회관. 지상 3층 규모 공연장은 '나는 가수다'와 '복면가왕'으로 유명세를 떨친 국카스텐 밴드 보컬 하현우의 선창에 관객석에 꽉 들어찬 500여 주민·관광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 치며 리듬에 몸을 맡겼다. 진각종이 마련한 '2022 회당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독도 아리랑 콘서트'의 마지막 장면이다.

날씨만 맑았다면 도동항 특설무대서 울릉도 밤바다를 바라보며 1000여 명 이상이 함께 즐길 수 있었겠지만,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진각종 측이 부득이하게 울릉도에서 가장 큰 공연장인 한마음회관으로 급히 장소를 옮겼다. 이 공연장은 평소에 400여 명 정도가 관람할 수 있지만, 이날은 복도에 앉은 사람까지 치면 500여 명이 넘었다. 공연시작 1시간 이전부터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회당문화축제는 진각종이 개종조(開宗祖)인 회당(悔堂) 손규상(孫珪祥) 대종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1년 첫 선을 보인 행사. 진각종서 주관하는 행사지만 해를 거듭하며 종교색보다는 대종사의 고향인 울릉도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채워주는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다.

'독도 아리랑 콘서트'에 앞서 진각종(통리원장 도진)은 6월 28일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에서 올해 회당문화축제의 첫 행사인 '진호국가 무진서원 불사(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이 처음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축제에 하이라이트인 '독도 아리랑 콘서트'는 1부 식전 행사와 2부 메인 공연으로 진행됐다.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도진 정사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전국명품축제인 회당문화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울릉도를 찾았다. 회당문화축제는 울릉도와 독도를 사랑하는 애국축제요, 울릉 아리랑과 울도선경가를 재해석하며 울릉도 문화를 섬기는 문화축제"라며 "회당문화축제가 내년에는 20회를 맞는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순수, 열정, 감동이 있는 축제로 승화시키고, 신행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무대에 올라 축사를 통해 "문화가 정착되고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구성원들과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소통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당문화축제는 회를 거듭하면서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형식의 행사를 통해 울릉도의 지역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회당문화축제가 그동안 코로나로 위축되고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울릉도 지역민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파사드 타악그룹 좋은친구들의 미디어 대북 공연으로 문을 연 2부 공연은 댄스크루 에어럴의 7명이 전설적 인기그룹 퀸의 히트송인 'Bohemian Rhapsody' 'Love Of My Life' 'Somebody To Love' 등 선율에 맞춰 강렬하고 인상적인 율동을 선보였다.



지역어린이집 원아들의 앙증맞은 공연.



울릉도 금강원을 참배한 종단협 회장단.

공연에는 지역 어린이집(꿈나무 어린이집) 5~6세반 원생들도 동참했다. 반짝이는 의상까지 갖춰 입고 열심히 율동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객석에 앉아 지켜보는 어른들은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공연의 대미는 국악가수 권미희와 국카스텐 밴드가 장식했다. 권미희 국악가수는 '배띄워라' '초혼' '진또배기'에 이어 앵콜송인 '홀로아리랑'으로 더욱 흥을 돋웠다. 특히 객석 맨 앞에 앉은 각 종단 총무원장들도 박자에 맞춰 손을 흔들면서 함께 공연을 즐겼다.

마지막 객석을 달군 것은 국카스텐 밴드의 몫이었다. '펄스'를 부르며 등장한 보컬 하현우는 '돌덩이' '걱정말아요 그대' '라젠카 세이브 어스' 등 내리 3곡으로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가왕의 매력을 흠뻑 발산하며 군중을 압도했다. 마지막 앵콜곡인 '한잔의 추억'을 부를 땐 전 관객들이 일어나 제자리에서 뛰고 팔을 허공에 내지르며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는 열광과 감동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에서 온 관광객 김다미(33) 씨는 "인터넷 기사와 포스터를 보고 우연히 오게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었다. 특히 국악 가수의 공연이 기억에 남는다"면서 "휴가 와서 좋은 추억을 남기게 됐다"고 공연이 끝난 뒤에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축제에 대한 찬사도 이어졌다. 도동항 인근 주민 최병만(53) 씨도 "문화혜택이 많지 않은 울릉도 주민들이 회당문화축제에 대해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진각종은 6월 28일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에서 축제의 첫 행사인 '진호국가 무진서원 불사(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이번 축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7대 종단 수장 모임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이 처음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궂은 날씨였지만 독도를 품은 외딴 섬 울릉도는 문화로 하나가 됐다.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했던 울릉도의 밤은 아름다웠다.

Interview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종조 탄생지 금강원, 울릉도 랜드마크로 조성"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제19회 회당문화 축제의 메인 행사인 '독도아리랑 콘서트'를 앞두고 6월 29일 울릉도 대아리조트에서 차담 형식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회당문화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의미와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A 코로나19로 2년 동안 축제를 열지 못했죠. 그런 아쉬움을 담아 이번 축제의 슬로건을 '코로나 19를 넘어 희망을 노래합시다'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회복, 다시 시작, 그리고 새로운 서원'이라는 메시지를 축제에서 전하려 했습니다.

Q 종조 탄생 120주년을 맞아 종조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 성역화를 시작한다.

A 금강원 성역화 불사는 이번 집행부의 핵심 사업이자 종조께서 항상 설하신 '진호국가불사'의 정신을 새롭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올해가 종조 탄생 120주년, 내년이 열반 60주년이라서 성역화 사업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역화 불사는 진각종 교도뿐만 아니라 울릉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둘 생각입니다. 일반인들도 금강원을 참배한 뒤 숙박하며 힐링할 수 있는 숙박 시설도 현대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Q '독도 아리랑 콘서트' 무대에서 울릉지역 구전가요를 창작 재해석해 기증했다.

A 이는 울릉도 전통문화 복원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2016년 '울릉아리랑', 2019년 '울도선경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작곡한 곡과 악보들을 모아서 울릉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회당문화축제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를 복원하는 결과물들이 쌓인다면 울릉군 문화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김주일 기자

농선 대원 선사의 전등록 30권, 화엄경 81권 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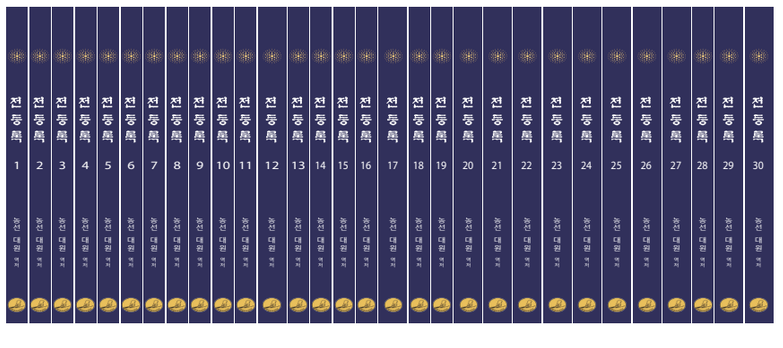
화엄경 81권 세트 100만원 (출판 기념 할인)

수덕사 만공선사의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의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불교 경전의 정수인
대방광불화엄경 완간!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출간 완료!

"7불과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의 진수가 담긴 선종 최고의 공안집!"
전등록 30권에 조사(祖師)마다 선리(禪理)의 토끼뿔을 더해 밝혀 보이다

농선 대원 선사는 불교의 최고 경전인 '화엄경 81권'을 완간하고, 선문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30권' 1,463칙에 대하여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최초로 전 공안을 맑은 물 밑바닥 보듯이 회통쳐 출간하였습니다. 그런 혜안(慧眼)으로 이번에 7불과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의 진수가 담긴 선종 최고의 공안집인 '전등록 30권'을 조사(祖師)마다 선리(禪理)의 토끼뿔을 더해 닦아 증득할 수 있도록 밝혀 보였습니다. 이 바로보임에 화살이 과녁에 적중하듯이 계합하여 참나를 깨달아 몸이 내가 아닌 '마음이 내가 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전등록 30권 도서출판 문젠
세트 45만원 (T.010-8670-1445)